



## 경동대 구내매점 영동권 유일 양담배 취급

### 교육적 측면 · 농가보호 차원 개선 필요 지적... 경동대 “자세한 내용 몰라 입장 표명 못해”

#### 강릉 4개 대학 · 속초 동우대학 취급 안해

고성군 소재 경동대학교가 영동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구내매점에서 양담배를 취급해 교육적 측면과 국내 앞담배 경쟁능가 보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T&G 속초지점에 따르면 강릉 소재 4개 대학을 비롯해 속초 동우대학 등 영동권 5개 대학은 구내매점에서 양담배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으나, 경동대학교만 유일하게 양담배를 취급하고 있다.

국산담배와 양담배 판매량 비율도 국산이 25%, 양담배가 75%로 양담배의 점유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양담배 점유율인

40%보다 높은 것이다.

KT&G 속초지점에 따르면 국산 담배의 경우 한갑당 담배소비세 640원, 교육세 321원, 의료보험 재정 354원, 부가가치세 10%, 폐기물부담금, 복지기금, 사회취약계층 지원, 농가보호 등 수익의 대부분이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

그러나 양담배의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외화가 연거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 모리스(미국), BAT(영국)사의 경우 공장설립 당시 국산 앞담배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원가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

경동대학교가 구내매점에서 양담배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 학교 인근 주민들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성면 주민 A씨는 “양담배든 국산담배든 다 몸에 나쁘지만, 대학교 안에서 양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양담배를 피우고 싶은 학생들은 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동대 사무국은 지난 7일 “구내매점의 양담배 취급 문제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없으며, 듣고 싶으면 대외협력실을 통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파악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주지 않았다. 최광호 기자



경동대학교가 영동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구내매점에서 양담배를 취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경동대학교 구내매점 모습.

## 청소년 흡연 · 음주 폐해 알려

### 고성군보건소 19개 학교 대상 금연 · 절주 교육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 2주간 고성군 관내 초 · 중 · 고 19개 학교 1,27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 절주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정무 금연전문강사와 금연상담사를 초청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한다.

보건소는 또 동영상 및 이론강

의 등을 통해 흡연의 심각성과 중독성 및 음주의 폐해를 알려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담배로부터 우리아이 지키는 ‘5분 건강 대화법’ 소책자를 배부한다

금연 및 절주 교육 후에는 학교 보건 교육실에서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



고성군보건소가 관내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 · 절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하고, CO 측정, 니코틴 FREE 금연보조용품 등을 지급한다.

고성군보건소 건강

관리팀 관계자는 “매월 15일은 금연 · 절주의 날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 · 절주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

## 러시아 냉동명태 3차수입

### 죽왕수협 통해 206톤 ... 8일부터 판매 개시

고성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직거래를 통한 ‘고성태’ 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제3차 냉동명태 수입이 지난 7일 죽왕수협을 통해 이뤄져, 8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수입한 러시아 냉동명태는 러시아 오호츠크해역에서 2월 중순 이후 잡은 것이며, 물량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206톤이다. 7통(41~43cm) 15,230편, 8통(38~40cm) 3,970편 등 총 19,200편 206.4톤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입한 냉동명태는 지역주민들에게 식관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영하 40~50℃에서 초저온으로 급냉한 것이며, 영하 30℃이하에서 냉동된 것으로 유지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수입은 러시아 회사인 PBTF가 1차 가공명태와 명란 등 부산물 수출문제와 4월 중순 이전까지 운반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협력선사를 통해 부산항으로 들여온 뒤 육로로 죽왕수협까지 운송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서울에서 PBTF사와 실무협상을 개최한 결과 군에서 요구한 물량과 가격은 합의됐으나 운반선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며 “최상의 포란태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우선 소량이라도 협력선사를 통해 들여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입한 러시아산 냉동명태는 죽왕수협을 방문해 직접 구입하거나 택배 · 배달주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판매 금액은 7통(15~16마리) 1편에 2만1천 원, 8통(18~19마리) 1편에 1만8천원이다. 최광호 기자

##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 · 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